

2024. 6. 20.(목) 석간용

이 보도자료는 2024년 6월 20일 오전 06: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## 보도자료

담당부서 : 재난안전관리실 도로계획과

도로 계획 과 장

오대중

02-2133-8060

민자도로계획팀장

강전남

02-2133-8071

사진없음

사진있음

쪽수 : 7쪽

담 당 자

이민경

02-2133-8072

### '내 차 높이 확인하세요' 서울시, 소형차 전용 지하도로 끼임사고 근절대책

- '신월여의·서부간선지하도로' 3m 넘는 대형 차량 끼임사고 예방 위한 대책 마련
- AI가 차량 높이 식별해 진입제한 안내... 교통표지판 개선, 노면색깔유도선 연장
- '내 차 높이 확인' 홍보, 내비게이션 우회정보 안내위한 '내 차 정보 등록' 캠페인
- 시 "나와 모든 운전자 안전위해 소형차 전용 지하도로 운행규정 숙지·준수 당부"

서울시가 '소형차 전용 지하도로'에 대형 차량이 끼는 사고를 막기 위해 인공지능(AI)으로 높이 3m 넘는 차량을 식별, 우회를 유도하는 시스템을 도입한다. 시는 또 '내 차 높이 확인' 스티커 배부와 함께 내비게이션에서 차량 정보를 토대로 우회도로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'내 차 정보 등록하기' 캠페인도 전개한다.

서울시는 국내 최초 소형차 전용 지하도로인 ▲신월여의지하도로(신월IC~여의대로) ▲서부간선지하도로(성산대교 남단~금천IC) 대형 차량 끼임사고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.

○ '21년 개통한 신월여의지하도로와 서부간선지하도로는 높이 제한 3m인 '소형차 전용 지하도로'로 승용차·15인승 이하 승합차·총 중량 3.5톤 이하 트럭만 진입할 수 있으나, 높이 제한을 초과하는 차량이 진입해 시설물에 끼이는 사고가 간헐적으로 발생해 왔다.

□ 시는 차량 끼임사고가 발생하면 교통정체, 터널 시설물 파손뿐 아니라 차량 연쇄 추돌 등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데다 초과한 높이에 따라 운전자가 과태료, 시설물 보수비용 등을 배상해야 해 모든 지하도로 이용자를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.

○ 초과한 높이에 따라 ▲0.3m 미만 30만 원 ▲0.3m 이상~0.5m 미만 50만 원 ▲0.5m 이상 100만 원이 부과된다. 실제로 '22년 발생한 끼임사고 운전자가 파손된 차로제어시스템 등 11개 시설 보수비용 약 1.1억 원을 부담하기도 했다.

□ 지하차도 끼임사고 근절 대책에는 ▲인공지능(AI) 활용 진입제한 안내시스템 신규 개발 ▲교통표지판 정비 ▲운전자 인식 개선 캠페인 ▲내비게이션(길도우미) 안내, 네 가지 추진 방안이 담겼다.

<AI가 차량높이 식별해 진입제한 안내… 교통표지판 개선, 노면색깔유도선도 연장>

□ 먼저, 소형차 전용 지하도로 진입제한 차량을 자동으로 식별하고 해당 운전자에게 알려 우회를 유도하는 '스마트 진입제한 안내시스템(가칭)'을 개발, 연내 도입할 계획이다.

- 딥러닝(Deep learning) 기반의 ‘인공지능(AI) 기술’과 물체 높이를 측정할 수 있는 ‘3D 라이더’ 및 ‘고성능 카메라’를 이용해 차량의 특징을 식별할 수 있도록 개발할 예정으로, 높이 3m 넘는 차량의 번호와 사진을 즉시 전광판(VMS)에 띄워 운전자에게 알리는 방식으로 운영된다.
  
- 아울러 높이 초과차량 진입금지 LED 깃발을 흔드는 ‘로봇 신호수’, 진입제한 차량에 효과적으로 경고 방송을 할 수 있는 ‘초지향성 스피커’ 등도 도입해 진입제한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. 동시에 도로관리사무소에 실시간 상황이 전파돼 사전에 상황을 파악하고 사고 등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  
- 다음으로, 복잡했던 기존의 교통표지판 디자인을 정비해 한눈에 읽기 쉽고 눈에 띄게 개선하고 안내표지판도 추가로 설치한다.
  - 시는 지난해 11월부터 행정안전부·서울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개선안을 도출, 오는 9월까지 안내판 개선을 완료할 예정이다.
  
- 교통표지판은 글자 크기를 키우고 핵심 정보만 단순명료하게 표시한다. 또 도로 위에 직접 진입제한 정보를 표시한 ‘노면색갈유도선’은 시작점을 100~630m 연장해 운전자가 소형차 전용도로임을 더 일찍 인지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. ‘대형차 진입 불가’ 안내표지도 51개(서부간선 31개·신월여의 20개) 대폭 늘린다.

<‘내 차 높이 확인’ 홍보, 내비게이션 우회정보 안내위한 ‘내 차 정보 등록’ 캠페인도>

- 시는 무엇보다 운전자가 자신의 차량 높이를 숙지함과 동시에 신월여의·서부간선지하도로는 ‘소형차 전용 지하도로’로 대형 버스·화물차 진입이 제한된다는 인식을 확산하기 위한 대시민 홍보도 전개한다.
  
- 먼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력해 화물운송종사자격증 뒷면에 <내 차 높이 확인> 스티커를 부착, 내 차량 높이를 평상시 숙지토록 하는 캠페인을 진행한다. 또 출퇴근 시간 교통방송(TBS·TBN)을 통해 소형차 전용 지하도로 운행 제한 정보를 수시로 알릴 계획이다.
  
- 아울러 화물차공제조합 등 유관단체를 통해 내비게이션에 ‘내 차량 정보(차종·높이) 등록 방법’이 담긴 홍보물을 배포한다. 내비게이션에 차량정보를 등록하게 되면 자동으로 해당 차종이 이용할 수 있는 경로를 알려주므로 끼임사고 예방에 효과적이다.

  - 시는 티맵(T-map), 카카오내비 등과 차량 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운전자를 고려한 지하도로 높이제한 안내 기능을 정비하고, 기능 개선도 지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.

  
- 김성보 서울시 재난안전관리실장은 “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진입제한 차량 감지·안내 시스템은 직원들의 아이디어에서 비롯된 새로운 시도로, 끼임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”면서 “나를 비롯한 모든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‘소형차 전용 지하도로’ 운행 제한 규정을 사전에 숙지하고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”고 말했다.

□ 신월여의지하도로 사업개요

- 구 간 : 양천구 신월동(신월IC) ~ 영등포구 여의도동(여의대로)
- 규 모 : 왕복 4차로, 연장 7.53km, 영업소 1개소(소형차 전용)
- 개 통 : '21.04.16(사업시행자 서울터널(주))



□ 서부간선지하도로 사업개요

- 구 간 : 영등포구 양평동(성산대교 남단) ~ 금천구 독산동(금천IC)
- 규 모 : 왕복 4차로, 연장 10.33km, 영업소 1개소(소형차 전용)
- 개 통 : '21.09.01(사업시행자 서서울도시고속도로(주))



① ‘스마트 진입제한 안내시스템’ (가칭) 구조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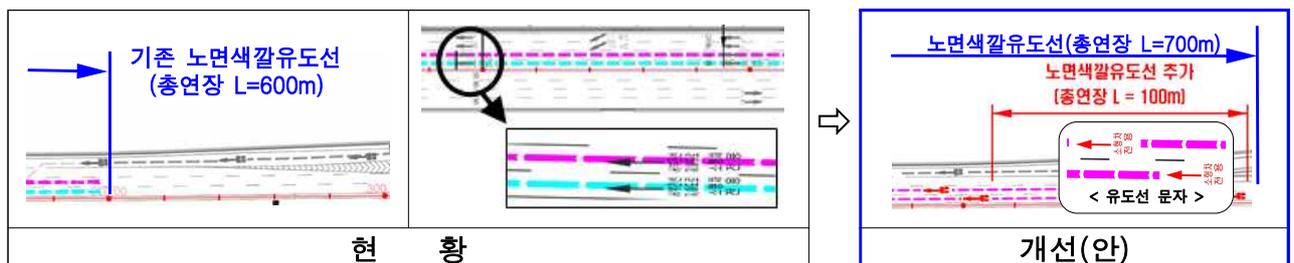


② 표지판 및 노면색깔유도선 개선(안)

○ 표지판



○ 노면색깔유도선



### ③ 캠페인 및 홍보

#### ○ ‘내 차 높이 확인’ 스티커

####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

사진  
(3.5cm×4.5cm)

상 호 명	
성 명	
자격증번호	

위 사람은 「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」 제8조 제1항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위의 업체에 소속되어 있음을 증명합니다.

년 월 일

서울특별시화물자동차운수사업협회이사장

#### 내 차 높이는?



※ 타일, 지하차도는 높이 확인 후 진입

**2시간 운전 후  
15분 휴식!**

한국교통안전공단 운전적성정밀검사 예약

모바일 PC	"TS국가자격시험(https://lic.kotsa.or.kr)" 검색 - 운전적성정밀검사
대표번호	1577-0990(2번 운전적성정밀검사 → 0번 상담원 → 1번 정보동의 → 주민번호 #)

운전적성정밀검사 수검 대상자

신규	· 신규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3년 경과 후 재취업(무사고자 제외)
특별	· 중상(5주 이상), 사망사고 발생 · 과거 1년 간 운전면허 행정처분 발령이 81점 이상
자격 유지	· 만65세 ~ 만 69세 : 3년마다 · 만70세 이상 : 1년마다

#### ○ 내비게이션 등록 안내 홍보물(예시 T-map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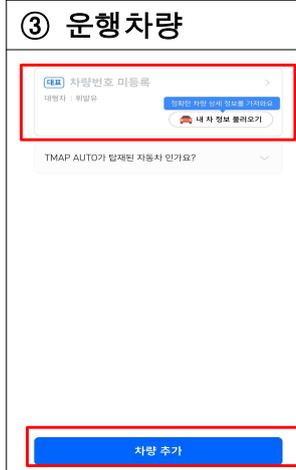
#### ① 전체



#### ② 차량 설정



#### ③ 운행차량



#### ④ 차종 및 높이 설정

